

人間愛가 함께 숨쉬는 大殿堂을 만들자

新年辭—戊辰年 새 아침에



총
장
金
斗
熙

우리 憲政史에 새로운 劃을 긋는 直選制合意改憲으로 평화적 政權交替를 위한 一大 轉機를 마련하고, 民主化의 토대를 구축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가히 激波이라 할 時局의 슬한 물결속에서 濟大人 여러분들은 事態解決의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間斷없이 진창길을 헤쳐 나오셨던 그간의 노고와 熱意에 진심으로 謝意를 표합니다.

그러나 學內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잇달은 學閥騷擾와 이토인한 학사일정의 正常軌道 이탈로 말미암아 慘憺한 挫折

感에 사로잡힌 진통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大學이 겪었던 우여곡절은 우리 大學만의 고유한 문제때문에 起因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政治的 民主化라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大學自律化 문제가 學閥正統化의 바탕위에서 맞물리지 못하고 표류했던 데 있다고 봅니다.

周知하다시피, 大學의 고전적인 교육이념은 인격교육이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진리의 탐구와 자유의 伸張, 그리고 인류 共同善을 드높이는 데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가 없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진정한 人間의 삶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大學人은 아무리 時代가 바뀌더라도 이같은 根本命題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진리탐구를 위한 강의실과 연구실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大學은 當장 오늘 주어진 目前의 課題뿐만 아니라, 머언 1세기 후의 상황까지를 포함해서 象徵하고 존재하는 삶에 있는 未來입니다.

大學은 國家發展과 사회통합을 위한 이념적 밑거름을 쌓아주되, 결코 大學 그 자체를 焦土化시킬 수는 없습니다. 大學은 政治·社會의 民主化를 다지기 위한 機能機能을 담당하되, 결코 政局亂流의 와중에서 從屬變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社會의 재료로 이용당해서도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다양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理想을 향

해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民主化의 腹罪辛으로 만드는 데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大學人이 해야 할 일은 民主化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룩하는데 先導的役割을 다하면서 學閥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停滯된 大學의 터전을 일구는 일입니다. 大學은 역시 극렬구호나 暴力로써가 아니라 진리탐구와 理性的 實踐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多文化된 고도산업사회와 치열한 國際競爭속에서 大學의 學閥의 發展이 없이는 국가사회의 實의 發展도 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論理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大學의 位相은 總長 개인이나 몇 사람의 책임자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濟大人 모두가 心協力함으로써 만이 정립시켜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며 常識과 順理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濟大人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後進을 扶養하고 新學風을 振興시켜 나가시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여러분 가슴속의 뜨거운 情熱을 和合의 情神으로 승화시켜, 우리 大學을 真理와 人間愛가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大殿堂으로 만들어 나가시다.

끝으로, 濟大人 모두에게 幸福과 健康이 늘 함께 하시기를 거듭 祈願합니다.

1988년 1월 4일

□新年詩

새 아침의出發에

梁 重 海

〈師範大學장·詩人〉

가자.

우리는 가자.

새 해 새 달 새 아침에

새로운 길으로 우리는 가자.

어제의 배설이

어제의 패배가 아플지라도,

그 배설과 패배를 밟아 뚫으며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는 가자.

산이 가로 막아도 가자.

눈보라가 거칠고

눈사태가 우리를 막는다 해도,

에베레스트 산상에 태극기를 꽂은

고상돈 허영희의 의지로 우리는 가자.

성난 파도가 울부짖는

바다가 앞을 막아도 가자.

첩첩 빙산이 가로 막아도,

남극의 빙토에 기지를 건설하는

그 물타는 가슴으로 우리는 가자.

혼자서 가지 말고

뭉쳐서 가자.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보다 강하다.

세 사람의 힘은 두 사람보다 강하다.

어두움을 걷고 성스럽게 열려 오는

1988의 팔팔 뛰는 젊음들이여!

우리는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쇠뿔치로 뭉쳐서 힘으로 가자.



□出帆 38cm×26cm·高在萬 (동양화가)

UNICOOP
University Co-operative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진년(戊辰年) 새해를 맞아
젊은대학인 모두의 가슴마다
용트림하는 큰 뜻과 이상으로
가득차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유니콥추진위원회」는
보다 밝고 희망찬 대학사회건설을 위해
젊은대학인 여러분과 함께
새해, 새 길을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유니콥추진위원회
UNICOOP Organizing Committe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미원빌딩 709호)
☎782-4754·4755, 783-1541·1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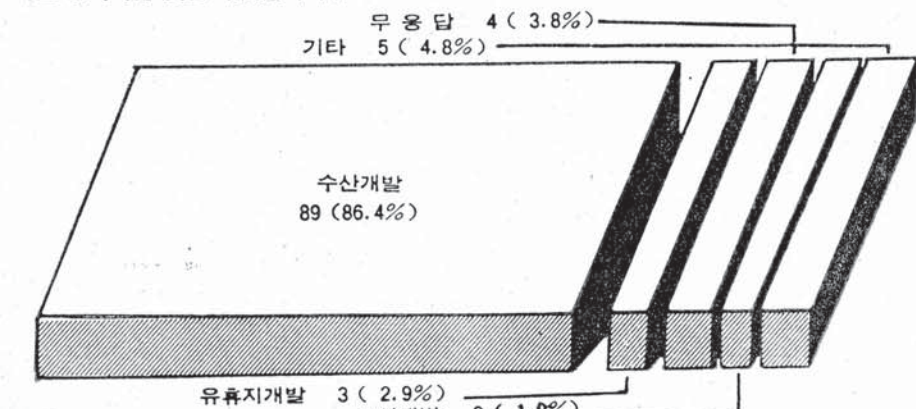
유니콥추진위원회는 대학과 사회라는 공동운명체이면서도 아주 이질적인 요소를 지닌 두 집단간의 상호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공고히 다져 바람직한 대학상·기업상·사회상을 구축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협동조합운동을 포괄적으로 추진·전개해 나감새로 단체인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니콥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한 학술세미나·도서출판·불우이웃돕기·장학사업 등의 여러가지 사회관련사업을 통하여 대학협동조합운동의 기틀을 효과적으로 다져 갈 것입니다. 저희 유니콥추진위원회는 이미 지난 87년 10월에 대학졸업예정자를 위한 채용정보지인 「'87 기업가이드」를 발간하여 취업을 앞둔 10만여명의 전국 대학졸업예정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의무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학에는 내일의 비전과 실리를 기업과 사회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명분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의 이상이자 당면한 현실의 목표입니다.

주제 논문부문 당선

2) 지역청년들의 적극성 결여: 한국농어촌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젊은이들의 이탈(이동), 離農(이농)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지역청년들의 조직운동활동은 미약하기 이를데 없다. 즉, 제반지역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청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음에 그 지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지역자재내에서 이에 따른 사전 사후대책을 면밀히 검토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지역의 큰 단점이다.

표 6) 성산리는 성산리의 관광개발과 병행하여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 사업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림자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는 곧 이 지역 청장년층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이제라도 지역의 청장년층은 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나갈 때 개발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자재내에서 청장년층의 토론회를 갖는거나, 성산리 출신가운데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에서의 지역주민참여방안

관광단지는 지역경관관광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월등히 우수한 지점에 대규모의 관광관련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집적효과를 얻으려는 개발의도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관광단지로써 중점, 조선, 조선, 세기이정되었다. 이미 1단계 개발을 마치고나 진행중인 중점, 포선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곧 개발계획단계, 개발과정에 주민의 의사반영이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소극적인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즉 구체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

여하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만들라는 도제와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관광인, 외지자본가와 토착민간에 협조적인 자세로 개발이 이루어져 광복화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몇가지 주민참여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1. 성산포내의 활용방안

제주에서 유수한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일출봉, 이리하여 자연경관과 대표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산포는 그 자연자원의 대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자원에 불구하고 현재는 적절한 관광개발 수단이 없이 그저치니가는 관광지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자원을 관광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인 개발자금이 투자되어 야합은 물론이고 극심한 자연파괴를 초래한다. 즉 입지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관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도 국제적 규모의 마리나시설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벼운 레저활동의 공간으로 개발할 때 자연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작은 자본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개발방안: 성산포 내해가 입지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관개로 요트는 부적합하고 그대신 카누, 뱃캠프, 테우, 그와 더불어 소형선박(모터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역시 자연환경보존을 고려해서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하르로 열세한 자본을 가진 지역민은 자연 참여를 하지 못한다. 지역민이 숙박업에 참여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민박을 개발할 소지가 무척 크다.

○성산리의 입지조건: 열수심점가운데 제 1경인 일출봉이 있어 제주의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숙박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제주의 어촌의 독특한 문화양식을 민박가옥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

○운영방안: 공원조성지역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가옥이 다른곳에 새로이 신축될 예정이 다. 신축되는 가옥은 민박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독특한 설계를 해서 건축한다. 그리고 민박가옥이 한곳으로 집약되도록 해서 집적이익을 도모하도록 한다. 민박촌이 조성되었을때는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조직화를 결성해서 제반인무를 총괄한다. 즉 기능을 살려 민박가옥과 민박을 원하는 관광객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수와 공간을 조절하기 위해 민박에악시시설을 도입 운영하고, 민박의 특성에 대한 대의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민박가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개선을 지도한다. 이밖에 민박요금등을 정한다. 무엇보다도 조직체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것은 지역주민조직체로서 지역에서 행해지는 불합리한 관광정책등의 시정 혹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압력단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정확적자원: 현대식시설을 갖춘 민박가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정책적인 차원이긴, 농업·수업에 의한 것이건 무리하다 한다.

○정책적지원: 민박이 아직 성공하였다.

○성산리 입지조건: 관광개발로 대단위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이와병행해서 다양한 레크레이션시설이 뒤따라야 한다. 승마 역시 레크레이션 활동의 일종으로 관광객들에게 심신의 피로를 풀어 줄 수 있는 활기찬 스포츠이다. 더우기 성산포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승마활동은 더없이 즐거운 관광이 될 것이다.

○위치: 성산일출봉과 신양해수욕장 사이 5백m 정도의 모래사장

○운영주체: 일출봉 진입로 옆 잔디밭에서 성산리 청년회가 개인과 분할하여 공동운영하여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성산리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즉 종전과 같이 개인과 분할하여 운영하지 말고 청년회가 상주직원을 고용해서 청년회조직체로서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입지조건: 성산지역에 대단위 숙박시설이 들어설에 따라 주변해역을 이용한 낚시터가 볼을 이룰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산리에는 성산일출봉이 있으므로 조망할 수 있는 경관도 뛰어나다. 다만 어족자원만 풍부하다면 더없이 좋은 낚시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드림통을 이용한 낚시터는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훌륭하고 어족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해서 고정시킨다.

○운영방안: 드림통낚시터를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 수역에 고정시킨다를 도합선을 이용하여 낚시꾼을 드림통낚시터에 운송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또한 그곳에 상주직원을 두어 쓰레기처리는 물론이거니와 낚시용구와 미끼, 음료수등을 판매한다. 태풍이 올때는 예인선을 이용하여 안전한 수역으로 이동시킨다.

學問의 研究로서 밀도있는 접근 시도

뽐고나서

이번 제 7회 백록학술상 「주제논문」에 응모한 편수는 2편밖에 없었다. 주제 「제3세대의 사회발전과 개발」에 관한 것이어서 社會科學 分野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論文이 응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먼저 앞선다.

어느 論文도 그렇지만, 社會科學 분야에서 主題의 선정은 특히 중요하다. 그 주제에 자기의 능력에 비해 한층 광범위하고 깊은 지식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경주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浮郎의 論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金慶培 君의 「地域住民을 위한 濟州道 開發戰略의 接近方法—濟州道 地域開發政策에 따른 問題點을 中心으로—」은 상당히 폭넓게 접근하였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초점이 흐리고 밀도있는 접근을 할 수 없었다.

한편, 사회과학 학생들(양성정, 홍성현, 김한범)과 관광경영학과 학생들(권혁성, 변재형, 김경주)의 공동작품인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은 주제—성산리를 중심으로—는 주제도 좋았고, 특히 이분바 學際間的 研究로서 밀도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學際間的의 공동작품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밀도있는 論文이 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단 두편이 응모되었지만, 후자의 논문을 당선작으로 하는 데에는 심사위원의 異議가 없었다.

심사위원 徐康林 (社大부교수) 金恒元 (師範대부교수)

기본설계도: <그림 1> 참조

○시설방법: 드림통을 2백 40개(약50평) 구입하여 드림통과 드림통을 연결하고 그 위에 폭포로 시설한다.

○시설자금: 일출봉 진입로 옆 잔디밭에서 성산리 청년회가 개인과 분할하여 공동운영하여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성산리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즉 종전과 같이 개인과 분할하여 운영하지 말고 청년회가 상주직원을 고용해서 청년회조직체로서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정책적지원: 현대식시설을 갖춘 민박가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정책적인 차원이긴, 농업·수업에 의한 것이건 무리하다 한다.

○정책적지원: 민박이 아직 성공하였다.

5. 「제3세대」의 도입

「제3세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동투자로서 설립되는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이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체제로 구성된다.

○성산리 입지조건: 성산리 주민들은 자본 및 경영기술등이 취약함으로 제3세대를 도입하여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제3세대」의 설립방안: 「제3세대」의 설립에는 관·공·민가 혼합방식에 의한 투자자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총괄주체와 부분별주체간에 세부적인 자치는 있었으나 광범한 기능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관련성이 강한 집단별로 군집화시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부처에 참여하고 적정개발을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투자부문을 관광개발 관련기관에 처분한다.

○공공부문: 한국관광공사,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등의 국영기업체가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또한 금융, 보험, 증권기관, 수협, 농협등의 사업주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참여 할 필요가 있다.

V. 결

지금까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방향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참여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난 20년간 추진된 제주관광개발은 관광소득의 증대와 고용기회확대, 그리고 관광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등을 통해 지역개발에 기여한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관광부흥을 지역개발의 지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관광개발은 그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 효과에 미치지 못하며, 사회, 문화적 측면이 경시되고 당면히 중심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자주적 프로그램이 결여됨으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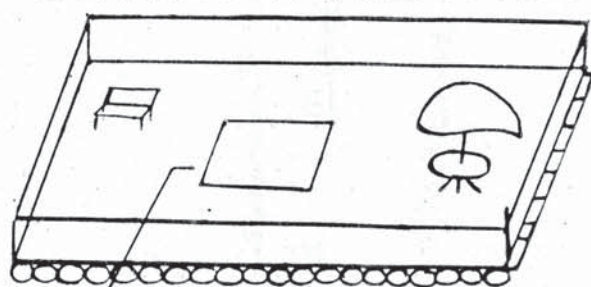
○운영방안: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에따라 장비를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관광객이 자기소유의 장비를 이용 위탁활동을 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운영은 50%는 회원제, 50%는 임대제로 운영하며 장비 1대당 4~5인의 단체 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이용도록 하며, 회원에 한해서는 크립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제의 경우는 4~5명 단위로 하여 단체 또는 1일전부 임대하여 방제로 운영한다.

○시설자금: 장기적인 계획 하에 우선 기본시설자금으로 1억여원(크립하우스 건립, 기타 부대시설, 각종 정비구입)

○정책적지원: 공유수면 사용인허가, 각종 세제상의 혜택

○재정적지원: 관광진흥자금, 농협, 수협자금대출

○효과: 지역개발이 촉진된다. 마리나시설을 함으로써 이 용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건설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위탁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기여한다. 지역민이 아직



<그림 1> 바다를 볼 수 있게 특수유리로 덮개를 만든다. *기타 편의시설로 파라솔, 벤치등을 구비함.

정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책적으로 많은 이해의 홍보등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효과: 열세한 자본으로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준다. 제주도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관광객들

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청년회 활동자금으로 사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승마장시설은 자연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자연이인 일출봉과 육계도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건설업체 관광관련 업체 민간 개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중단체 국영기업체

정부부문 제3세대 공공부문 민간부문

4. 드림통을 이용한 낚시터개발

연근해에서 낚시를 할 경우 주변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조망할 수 있는 경관도 미약할 뿐만아니라 어족자원 역시 빈약하다. 이를 해소키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망할 수 있는 경관도 좋고, 어족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하여 드림통을 이용한 낚시터를 그 지역에 고정시켜 낚시터로 활용한다.

3. 승마장

○유래: 스코틀랜드에서는농가에서 사육하던 Pony가 어린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농가에서는 조랑말을 이용하여 전일산책이 나 탈구지 관광을 시작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2. 민박촌 건립

제주도는 도서라는 지리적조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숙박을 해야만 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이에따라 숙박시설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숙박시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

1. 성산포내의 활용방안

제주에서 유수한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일출봉, 이리하여 자연경관과 대표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산포는 그 자연자원의 대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자원에 불구하고 현재는 적절한 관광개발 수단이 없이 그저치니가는 관광지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자원을 관광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방안: 성산포 내해가 입지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관개로 요트는 부적합하고 그대신 카누, 뱃캠프, 테우, 그와 더불어 소형선박(모터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역시 자연환경보존을 고려해서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0. 성산리의 입지조건

하르로 열세한 자본을 가진 지역민은 자연 참여를 하지 못한다. 지역민이 숙박업에 참여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민박을 개발할 소지가 무척 크다.

○성산리의 입지조건: 열수심점가운데 제 1경인 일출봉이 있어 제주의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숙박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제주의 어촌의 독특한 문화양식을 민박가옥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

○운영방안: 공원조성지역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가옥이 다른곳에 새로이 신축될 예정이 다. 신축되는 가옥은 민박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독특한 설계를 해서 건축한다. 그리고 민박가옥이 한곳으로 집약되도록 해서 집적이익을 도모하도록 한다. 민박촌이 조성되었을때는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조직화를 결성해서 제반인무를 총괄한다. 즉 기능을 살려 민박가옥과 민박을 원하는 관광객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수와 공간을 조절하기 위해 민박에악시시설을 도입 운영하고, 민박의 특성에 대한 대의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민박가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개선을 지도한다. 이밖에 민박요금등을 정한다. 무엇보다도 조직체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것은 지역주민조직체로서 지역에서 행해지는 불합리한 관광정책등의 시정 혹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압력단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

0. 시설방법

드림통을 2백 40개(약50평) 구입하여 드림통과 드림통을 연결하고 그 위에 폭포로 시설한다.

기본설계도: <그림 1> 참조

○시설방법: 드림통을 2백 40개(약50평) 구입하여 드림통과 드림통을 연결하고 그 위에 폭포로 시설한다.

○시설자금: 일출봉 진입로 옆 잔디밭에서 성산리 청년회가 개인과 분할하여 공동운영하여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성산리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즉 종전과 같이 개인과 분할하여 운영하지 말고 청년회가 상주직원을 고용해서 청년회조직체로서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정책적지원: 현대식시설을 갖춘 민박가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정책적인 차원이긴, 농업·수업에 의한 것이건 무리하다 한다.

○정책적지원: 민박이 아직 성공하였다.

5. 「제3세대」의 도입

「제3세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동투자로서 설립되는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이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체제로 구성된다.

○성산리 입지조건: 성산리 주민들은 자본 및 경영기술등이 취약함으로 제3세대를 도입하여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제3세대」의 설립방안: 「제3세대」의 설립에는 관·공·민가 혼합방식에 의한 투자자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총괄주체와 부분별주체간에 세부적인 자치는 있었으나 광범한 기능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관련성이 강한 집단별로 군집화시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부처에 참여하고 적정개발을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투자부문을 관광개발 관련기관에 처분한다.

○공공부문: 한국관광공사,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등의 국영기업체가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또한 금융, 보험, 증권기관, 수협, 농협등의 사업주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참여 할 필요가 있다.

V. 결

지금까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방향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참여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난 20년간 추진된 제주관광개발은 관광소득의 증대와 고용기회확대, 그리고 관광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등을 통해 지역개발에 기여한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관광부흥을 지역개발의 지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관광개발은 그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 효과에 미치지 못하며, 사회, 문화적 측면이 경시되고 당면히 중심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자주적 프로그램이 결여됨으로

◇공동논문발진

- 관광경영학과 권혁성(3)
- 변재형(3)
- 김경주(2)
- 사회학과 양시경(3)
- 홍성현(3)
- 전한범(2)

Technopia

금성의 尖端技術이 펼쳐가는樂園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테크노피아의 실현이 곧 나의 과제로 변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바로 첨단 VCR용 IC회로를 설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전공이 비록 전자공학이긴 했으나, 첨단 IC회로를 설계하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선배 연구원들의 끈질긴 집념을 피루로 느끼면서 "콜렉터전압"을 따지고 "바이어스"가 어떻게 하면서 나는 어느덧 IC의 마이크로 세계를 만끽하는 탐험가가 되어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VCR의 선명화면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개발한 GS20111 Servo Control IC들을 떠올리고는, 이것이 바로 테크노피아를 실현하는 또하나의 길이라 생각하며 뿌듯한 감회에 젖어본다.

아우들이여! 우리 연구소, 우리 사회는 바로 아우들의 명석한 지혜와 섬세한 손길, 그리고 끈질긴 집념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당부해둔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

*금성 중앙연구소 주임연구원 이 문 기

•금성사•금성반도체•금성소프트웨어•금성부품•금성통신•금성전기•금성알프스전자•금성정밀•금성산전•금성계전•금성기전•금성아니엘•금성전선

제주 공항에서

朴慶善

싱그러운 바람이
산내들이던가
물내들이던가
가슴에서 설레이는
風蘭다는 섬냄새

바다위에 문득 솟은
커다란 거북이여



그 옛날 神秘하고
고은 이 모여 사는
땅이던가, 섬이던가

나 이제
한식구 되어
가벼운 걸음마여
나 이제
푸른 꿈 채우는 시작이여라.

<詩人, 대유수업장대표>

82년 종합대학으로 개편된 현재까지 꾸준한 발전을 보여 온 본교는 규모면에서 종합대학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파대가 법정 대학으로 분리 개편되고, 이공대에 정원 40명의 수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가 신설돼 7개 단과대학 51개학과(이공대 포함)의 규모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우리대학도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현재의 위치를 재점검 해 봐야 할 때라 생각한다. 즉, 거의 매년 다수의 학과신설이 과연 학교발전의 충분조건이냐 하는 것과 앞으로 어떤 학과들이 신설돼야 하는가, 그리고 학과신설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를 타개해 나갈 해결책은 무엇인가 등 우리앞에 놓인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내·외적으로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 방향으로 앞의 문제들을 살펴볼까 한다.

첫째, 거의 매년 다수의 학과신설에 대한 논란이다.

작년 9·10월에 있었던 일련의 학과신설 반대 시위와 성명서 등을 보면, 학과신설은 양적팽창만을 위한 학교발전의 무책임한 처사로 유사학과 학생들의 전공영역의 침해와 취업난 가중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거나 또는 학과신설을 요청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수의 전공에 맞춰 요청

하거나 교수간의 알력이 작용한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렸었다.

이에 대해 盧洪吉(어업학과) 교무처장은 「증거에 있어 교수 알력 운운은 전혀 근거없는 말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축하고 「신설되는 모든 학과의 학문적 영역은 기존학과와 관련성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것임」이라고 밝혔다. 학문의 발전은 서로 관련된 영역들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뤄나갈 때 가능한 것임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盧교무처장은 「양적 팽창도 학교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학생들에게도 여러 분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학과신설의 적정성이 소시민적임을 지적, 지나친 피해의식은 갖지 말라」고 당부한다.

학문발전이라는 것이 단계를 정해놓고 어느 한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를 건널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공대 K군의 말을 들어 보면 「신설된 1~2년도의 인력 확보인 경우, 일정규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관련학과가 신설돼 교수부담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상호관련성과 조화를 바라고 발전해야 한다 해도 시기상 너무 이르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현재에서 종파는 시기상조임을 표명한다.

이에 대해 高慶權(기관공학과) 이공대학장은 「학과신설은 국가적, 지역적, 대학 자체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과신설을 검토할 때 이공대 학과가 필요하며 본교의 경우 여학생이 많은 점을 감안, 작년 식품영양학과를 통해 산업디자인학과를 신설해 왔는데, 산업디자인학과는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분야라 생각한다. 또한 이공대학자로 보면 물리, 생물, 수학, 화학 등은 반드시 필요한 기초 학문 분야로 빨리 생길수록 좋은 것임이다」라고 말한다. 대학발전은 현재의 기준이나 입장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대학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 지역적 특성성을 강조, 세계학문의 보편적 추세에는 둔감했다 할 수 있는데, 첨단과학분야의 개척도 종합대학으로서 본교가 갖는 과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건국의 계속된 학과신설에 있어서 과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홍보

부족에 따른 인식의 부족이라 하겠다. 작년 증과 반대 시위 때도, 「관련학과 교수들도 증과신청 사실을 모른다」하여 비합리적 소란이라는 말도 많았다. 「학과가 신설되면 인력정당성을 거쳐야 하는데 본교의 경우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의결을 수렴한 뒤 발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회의에서 최종 결정」 문교부에 증과를 요청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교수들이 출장등의 이유로 교수회의에 불참하게 될 경우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과의 사이에 불신은 커지고 이해의 소지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학과신설요청결

속수무책인 교원적체현상

현대의 대학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어떤 사람들은 사회조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호적절하게 공급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면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번쯤 설계해 보기도 하지만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졸업자가 숫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수요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기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부각되고 있는 취업문제는 많은 학생들에게 불안요소를 던져주고 심한 경우에는 학습동기마저 잃게 하는 등 사회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 취업률이 가장 높은 사범대도 교원적체현상이 7백44명에 이르렀고 실제 교사임용율을 보면 몇몇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매우 저조해 매년 배출되는 졸업자의 증가로 교원적체현상이 심각하다.

교원적체현상은 70년대 후반까지 정부의 고도 경제성장정

책의 추진으로 사범대 출신자의 산업계 진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사의 이직률이 높았던 것이 80년도에 이르러 세계경제불황사 대외적존재이던 한국경제가 심한 타격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 한때 12%까지 치솟았던 교사이직률이 84년 이후 3%이하로 격감하고 있는 반면 70년대 후반부터 사범대 학생정원이 계속 증원 조정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일관성 없고 근시안적인 정책운용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교육제도 모순의 일면이다.

이러한 원인에 의한 교원적체현상은 82년부터 본교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서 극을 달리게 되었다.

전국 사범대 교사임용율을 보면 80년에 1%였던 것이 83년에 94.3%로 떨어지고 84년에는 64.7%로 계속 급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교 사범대 교사임용율은 84년에 61.1%에서 85년에 35.5%, 86년에 12.1%로 떨어지고

87년에 이르러 4.2%로 급락하고 있지만 변동폭도 심하고 전국 사범대 임용율보다 저조한 형편이다.

각 학과별 임용율을 보면 87년 9월 현재 국교과 89%로 가장 높고 음교과 84.3%, 영교과 63.5%, 수교과 27.2%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학과는 10% 내외의 매우 저조한 임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보면 전공학과에 따라 발령률이 높은 학과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과가 낮고 그 변동폭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지역 교원배정율을 보면 84년도에는 94.1%(1백77명)이었던 것이 85년에는 98.3%(3백49명), 86년에는 65.7%(2백72명), 87년에 이르러서는 64.5%(2백69명)로 떨어져 매년 급락하고 있어 제주지역내에서 교원발령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전국 인구증가율에 비해 상수인구증가율이 낮다는 점과 도내에 교육기관이 증가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현재 본교 사범대 출신 미발령대기자가 7백44명에 이르렀으나 현재 도내 교원수 1천5백명에 비추어 볼 때 교원수급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다 올해 사범대 졸업자 4백17명이 증가함으로 타 시·도배정이 더욱 증가하지 않는 한 도내에서의 교원수급을 통한 교원적체현상을 해소하기란 매우 희박하다.

본교 사범대 출신자의 타 시·도배정을 보면 84년 이후 일부학과가 경상, 강원, 전남지역에 소수가 배정되다가 87년 들어 서울지역에 18명, 경기 59명, 인천 10명, 강원 39명, 충북 8명, 경북 13명, 경남 1명 등 총 1백48명이 배정돼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과별로 배정에 차이가 있고 수적으로도 낮은 교원적체현상 해소를 위한 청신호라고 보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본교 사범대학에서는 교원발령적체현상해소를 위해 지난 2학기에 기정 발령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교육과에서는 10월 31일부터 한달여 동안 총장실, 학장실을 접거하여 철야

농성을 벌이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절실한 요구를 했으며, 사교, 윤교, 상교, 가교발령대책위원회에서도 서명운동 및 각 기관에 청원 절의서 발송 등 다방면에서 현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한 바 있다.

체육교육과에서는 지난해 한달여동안 총장실, 학장실 접거농성을 벌이면서 「체교출신자를 비롯 사범대 출신자들이 배려받아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배려받지 않는다면 배려를 받게 해 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비롯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현재 본교 교원적체현상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교부와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 발원한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대폭 배정해 줄 것을 물론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본교의 교원적체현상을 통보하여 지역적 균형배정을 적극 권장,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따라서 교원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현장에서 잡일 및 기증시간의 강요 등 초과부담과 산지교사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수를 줄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학급수를 늘려 교원수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앞서서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해 문교부에서는 교육정책 역시 국가정책운용의 한 부분이므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인만큼 어렵다고 하나 교원적체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다각적인 해결방안 검토를 정책상 문제점들이 하루속히 개선돼야 마땅하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이며百年之大計이다. 따라서 문교부에서는 경기변동에 좌지우지하는 일기응변식 교육정책운용에서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비의 원활한 운용과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각성이 요구된다.

[양영대記者]



◎학과신설요청 결정이 났으면 전체교수는 물론 교직원·학생들에게까지 증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지난 2학기부터 학생들이 「교원적체 해소」를 주장하며 교내 시위하는 광경.

학과신설 논란을 보면서 대학은 직업인 양성기관인가

부족에 따른 인식의 부족이라 하겠다. 작년 증과 반대 시위 때도, 「관련학과 교수들도 증과신청 사실을 모른다」하여 비합리적 소란이라는 말도 많았다. 「학과가 신설되면 인력정당성을 거쳐야 하는데 본교의 경우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의결을 수렴한 뒤 발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회의에서 최종 결정」 문교부에 증과를 요청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교수들이 출장등의 이유로 교수회의에 불참하게 될 경우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과의 사이에 불신은 커지고 이해의 소지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학과신설요청결

정이 났으면 전체교수는 물론 교직원·학생들에게까지 학과신설의 타당성이나 과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마련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어떤 학과들이 신설돼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근래 몇 년 동안 신설된 학과들은 모두 자연과학 분야에 속해 있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기술의 국제경쟁력에 부응하고 모든 산업분야에 강력

한 이론의 제시를 할 수 있는 기초이론계열과 공학계열 학과들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조화로운 발전이라 생각한다. 학문의 분야는 많지만 서로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학문의 보편적 추세는 자연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과학의 시대이면서

정보화 시대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관련학과 신설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문과 지식의 기초인 철학과 필요요소에 인식해야 하겠다. 진로문제 때문에 철학과신설을 주저한다는 것은 「대학이 결코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는 인식하에서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세계 학과신설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책들도 결코

전공도서 확보이다. 87년 12월 31일 현재 중앙도서관 소장 도서는 13만 9천 1백33권으로 문교부의 대학도서관 장서보유량(학생 1인당 30권)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 실정이다. 85년 10월부터 도서관예산확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의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의 장서보유량은 본교의 질적향상

을 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모금운동은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 취업문제도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인데 졸업후 취업이 이루어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도 학교당국의 대담마련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취업담당대책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전·후기 분할모집방안을 검토 시행하는 것도 본교 발전의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지원경향이 대부분 육지부대학을 선호해 본교가 우수학생 유치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하겠다. 더욱이 대부분의 신생학과이거나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이공대의 경우는 전·후기 분할 모집도 단기간에 내실을 기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학발전은 그 대학자율에 달린다는 문교부 방침이 어느정도 진실성있는 것인지 불확실한 자화상을 외치는 상황에서 본교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해 봐야 할 것이다.

학과신설 논란은 홍보·인식 부족에서 비롯 실험실습器材, 충분한 재정적 지원 있어야

정기 있었으면 전체교수는 물론 교직원·학생들에게까지 학과신설의 타당성이나 과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마련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어떤 학과들이 신설돼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근래 몇 년 동안 신설된 학과들은 모두 자연과학 분야에 속해 있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기술의 국제경쟁력에 부응하고 모든 산업분야에 강력

한 이론의 제시를 할 수 있는 기초이론계열과 공학계열 학과들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조화로운 발전이라 생각한다. 학문의 분야는 많지만 서로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학문의 보편적 추세는 자연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과학의 시대이면서

정보화 시대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관련학과 신설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문과 지식의 기초인 철학과 필요요소에 인식해야 하겠다. 진로문제 때문에 철학과신설을 주저한다는 것은 「대학이 결코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는 인식하에서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세계 학과신설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책들도 결코

전공도서 확보이다. 87년 12월 31일 현재 중앙도서관 소장 도서는 13만 9천 1백33권으로 문교부의 대학도서관 장서보유량(학생 1인당 30권)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 실정이다. 85년 10월부터 도서관예산확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의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의 장서보유량은 본교의 질적향상

을 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모금운동은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 취업문제도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인데 졸업후 취업이 이루어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도 학교당국의 대담마련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취업담당대책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전·후기 분할모집방안을 검토 시행하는 것도 본교 발전의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지원경향이 대부분 육지부대학을 선호해 본교가 우수학생 유치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하겠다. 더욱이 대부분의 신생학과이거나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이공대의 경우는 전·후기 분할 모집도 단기간에 내실을 기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학발전은 그 대학자율에 달린다는 문교부 방침이 어느정도 진실성있는 것인지 불확실한 자화상을 외치는 상황에서 본교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해 봐야 할 것이다.

戊辰年 용해를 맞으며

무진년의 태양이 떴다!
새해엔 새로 태어나고 싶다.
봄도, 마음도, 환경도..... 보다 새롭고 싶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속박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
그리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속에 환희의 태양을 맞이하고 싶다.
젊음, 산이, 무한한 가능성, 순수한 가슴, 열정의 불꽃, 내일을 향한 강한 추진력..... 이 모든것들이 우리들의 것이기에 우리는 해야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뚫을 수 있다. 이 가시밭길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잠재되어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다.
빛날의 보석같은 결실을 밟고 오늘도 날개 짓해야 한다.
용의 꿈을 거머쥐어 우리를 부른다.
그렇다 친구야!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용의 해를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해 새해엔 승리의 날개 짓을 써라!
이곳 용문에서 여의주를!!
이곳 용문에서 협찬 비상을!!
이곳 용문에서 합력의 영광을!!
1988년 1월

용문학원 감사일동

Veni! Vidi! Vict!

'88 입학안내

龍門學院

제주시연동301~12 (신제주 로타리)
☎ 42-9220 27-4315

학급편성

- *문과반 *이과반 *여학생반
- *야간반 *고입 종합반

개강

개강일 : 1988년 3월 3일
등록일 : 1988년 2월 1일~2월 25일
예비소집일: 1988년 3월 2일 오전 11시
예비소집 장소 : 본 학원

지도방침

본학원은 정선된 교재와 효율적인 시간배정 아래 권위있는 강사의 열성적인 지도로써 학생들의 입시준비를 「誠實」 「忍耐」 「努力」로 결집하게 하여 「合格」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진학지도

학생의 지원경향과 성적특징등을 분석 파악하고 학부모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지원 후시험에 따른 확률 높은 진학 지도를 한다.

특집 제7회 白鹿學術賞

송 미 라
〈국어교육·4〉

【서론】

현진전은 근대 단편소설과 사실주의 문학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상 최초로 기교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근대문학을 전개시킨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의 문학관과 소설 양식에 민족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현, 김윤식의 『韓國文學史』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여 그가 시대인이 아닌 부활한 작가라는 종래의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진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그의 문학사적 위치에서 말미암은 것이 많아 식민지 당대 현실을 얼마나 예리하게 파악했는지 그것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었다. 이처럼 그에 대한 연구는 작품의 외재적 평가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재적 방법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와서 그의 전 작품을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구가 미흡했던 그의 후기 장편에도 접근의 손길이 뻗고 있으며 그 성과도 자못 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문학의 외재적 방법만이 선행되고 있다. 신동욱·한상우·최원식·정현숙 등이 「無影塔」을 연구한 대표작인 경우인데 이들의 글에서도 작품이 지니는 문학적 평가를 우선하고 있다.

작품에 시대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는가는 혹은 작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작품 자체의 치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無影塔」의 구조 분석은 이 작품에 대한 내재적 분석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분석 연구의 첫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無影塔」의 역사소설, 신소설로서의 기능을 따져보기 이전에 소설 미학적 차원에서 작품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9)에서 아사달은 자기가 세진 願佛에서 두 여인의 승화된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못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주만과 아사달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전개되고 있다. 주만과 아사달은 불국사 안에서만 생활하며 합방은 일로 몰두하는 아사달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달을 향한 일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도 그 사랑의 형태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이 된다. 주만이나 아사달의 사랑을 추구하며 겪게 되는 시련의 극복도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시련에 약해지거나 꺾이지 않으려는 자신과의 싸움이 더욱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는 사랑을 추구하는 데 동시에 좀더 내면적인 측면에서 통찰을 주는 자신과의 싸움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사달이 탐을 쫓는 과정

다. 사랑과 시련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의 내면 심리 뿐만 아니라 두 여인의 죽음에 맞이하는 자세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 죽음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수용하며 겪는 아사달의 갈등과 그의 죽음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작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나 공간의 이동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의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서술해가는 과정에서 중심 인물이 변할 때마다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각각의 중심 인물 속에서 본다면 순차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시간은 각 중심 인물을 주축으로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죽음을 통해 하나의 시간상선으로 모아져서 영원한 세계로 도달하게 된다. 이 작품의 공간은 사랑과 시련의 전개 과정에서 서라벌의 불국사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주만이나 아사달이 중심인물이 되어 전개될 때는 주만과 아사달이 부에서 사랑의 대상이 있는 불국사를 향해 움직이

다. 작품 전반에 걸쳐 주만, 아사달, 아사달의 사랑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지만, 주만을 둘러싼 금성이나 경신과의 관계, 아사달을 둘러싼 여러 제자들의 압력도 모두 사랑을 성취하려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의 흐름이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는 만큼 인물들간의 대립이나 갈등 혹은 협조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 르네-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원용해서 살펴보자.

(1) 주만의 경우 주만은 아사달을 향한 사랑에 금성의 청혼과 경신과의 정혼이라는 시련이 차례로 닥쳐 방해를 한다. 이를 주만이 주체가 된 욕망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방해자로서 첫번째 역할을 하는 금성의 청혼은 그 이전에 당할 파와 극선도대라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청혼이 거절되자 대립은 첨예화되며 방해 작용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증으로 하여금 주만과 경신과의 정혼을 추진하게

의해 그들의 사랑을 수용함으로써 그의 욕망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아사달의 욕망은 사랑의 성취가 아니라 탐의 완성을 통해 구현되는 불교적인 이상 세계로의 도달에 있는 것이다. 아사달이 추구하는 욕망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때 중개의 역할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①아사달에게는 처음부터 탐의 완성을 통해 구현될 불교적 이상 세계로의 도달이라는 욕망이 있었다. 그래서 아사달이 불국사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완성하는 첫번째 단계에서는 그 어떤 중개의 역할이 없이 수직적으로 목표가 되는 대상을 추구하고 있다.

②그러나 두번째 단계에서는 주만과 아사달의 죽음을 통해 부처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새겼으므로 주만과 아사달은 아사달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중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사달이 주체가 되어 성립하는 욕망의 도식도 물론 성립하지만, 이는 주만과 아사달의 경우처럼 사랑의 욕망 도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전면에 사랑 이야기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 작품을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無影塔」은 두 개의 구조가 병존하며 양면성을 띠는 작품이 아니라 사랑의 전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죽음이라는 변증법적 해석에 의해 불교적 이상 세계로의 도달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IV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

지금까지 「無影塔」의 중심 인물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살펴 보았다. 그런 과정에서 사랑 이야기로서의 구조가 죽음을 행위를 통한 불교적 이상 세계의 구현이라는 구조로 변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에 의해 나타난 불교적 이상 세계의 구현을 살펴보자. 우선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 죽음의 의미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李在鎭과 李仁福이 나는 죽음의 의미 유형에 의하면 「無影塔」에 나타난 세 사람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라기보다는 주체적 죽음이다. 이런 죽음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無影塔」이 사랑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불교적 이상 세계의 구현이라는 보다 차원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우선은 <도표-V>를 통해 결론에 나타나는 세 죽음의 의미를 알아 보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는 아사달을 향한 아사달의 욕망 추구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완공하는 아사달에게 사랑의 진실이 전달되지 못했다.



뽕고나서

이번 일만 논문의 응모작은 총 8편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국어학 논문 3편, 국문학 논문 3편, 영문학 논문 1편, 국민윤리 논문 1편이다. 모두 일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으로, 그 중 국어국문학 분야가 왕성한 의욕을 보여 준 반면, 자연과학 분야에선 한 편도 응모작이 없어 실망했다. 다음 해에는 자연과학계 학생들의 열의와 동참을 기대한다. 응모 논문은 각 분야별로 전공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다시 종합하여 전 심사위원의 협의와 심사는 과정을 거쳤다. 학술 논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을 바를 설명하게 부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거가 객관적으로 빈틈없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응모 논문을 볼 때 우수작의 수준도 높았던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강호순(국교4년)의 「제주방언의 반복 복합 부사 형식에 대한 규칙화 시론」, 한기홍(국문·4년)의 「열지 후리는 노래의 實相」, 송미라(국교·4년)의 「「無影塔」의 구조 분석」 3편을 가장으로 뽑았다.

강호순의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논문이 갖추어야 할 점을 고려한 때 만족스러웠다는 뜻에도 논문의 모습에 비교적 접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아쉬운 점은 자료제시가 풍부한데 비해 주제에

입선소감

논문이 있기까지 안교수님의 지도와 그의 여러 교수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쁨이나 감사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부끄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한다면 사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맞는 논지 전개가 아직 미흡한 점이다.

한기홍의 논문은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두루하게 이끌어 가는 문이다. 몇몇 후리는 노래의 배경·분포 및 전승 실재 그리고 그 가사를 직접 현지 조사하고 분석한 공이 있다. 배경인 어랑계의 조직·작업 실재·분포 등을 소상히 조사하여 밝힌 점은 좋았으나 여정을 두어야 할 사실과 기능의 분석이 미흡한 점이 아쉽다.

송 미라의 논문은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개성있는 특색을 띠고 있어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소설 텍스트를 논문의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연구자는 우선 텍스트를 충분히 읽고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분석자는 객관적인 논리와 풍부한 이야기 거리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응용력을 기르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이론과 주장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아쉬운 점은 또한 이런 데 있다. 모두를 앞으로 더욱 정진하기를 기대 한다.

심사위원

- 현운준(배학원장)
- 양순필(사대교수)
- 김형원(사대부교수)
- 양경주(인문대부교수)
- 최규일(사대교수)

일반논문부문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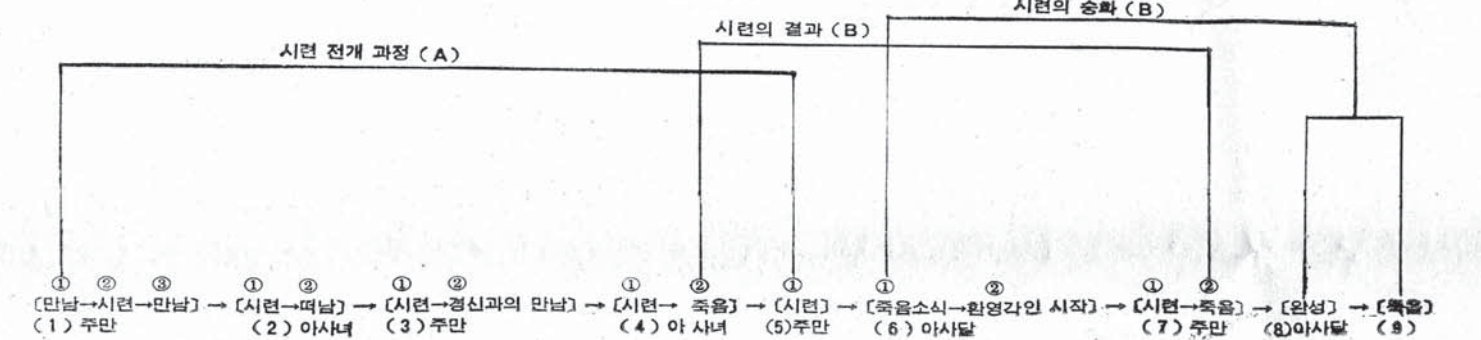
「無影塔」의 構造分析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

에서 취하는 태도와도 일맥 상통한다. 주만과 아사달에게 가해지는 시련은 계속되다가 결국은 B에 이르러 두 여인을 죽게 한다. 이들의 사랑에 가해지는 시련이 계속되는 동안 두 여인은 이의 극복과 함께 眞實의 추구라는 자기자신과의 싸움도 더욱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련의 가장 끝에 죽음이라는 극한의 순간이 닥치자마자 이 작품의 전개 과정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 서술,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고있다. 그러나 죽음이 전개되면서 공간은 불국사에서 그림자 못으로 이동한다. 이는 無影塔에서 영지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머물지 않고 두 여인의 죽음을 통한 자라벌에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불국사나 시정, 혹은 시간·공간적 이동상황 모두가 시련의 전개·결과·승화라는 작품의 전개 과정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 서술,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만은 이런 방해 작용에 주저하지 않고 아사달을 향한 마음을 확고히 다진다. ②경신이 하는 두번째 중개의 역할은 금성의 경우와는 달리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경신과 이루어지는 정혼 자체는 아사달을 향한 사랑에 방해 요인이 되지만 경신 자신은 주만의 사랑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금성의 방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음에 비해 경신의 결



사랑이야기에 머물지 않는 불교적 이상세계의 구현
죽음을 통해서 두여인은 殺身成人의 높은 경지도달

아사달은 주만과 아사달이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련을 겪는 동안 탐욕은 일어난 몰두했다. 그러다가 이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는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진실한 사람은 곧 진실한 삶과 통하고 있는 부처의 세계와도 연결되는 것

작품의 서술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서, 다시 이는 각종 인물들의 행위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인물들의 행위 기능을 통해 살펴 보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작품의 구조 해명에 미비한 점이 많게 된

우선 주만으로 하여금 충분히 갈등을 느끼게 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주만은 이러한 두번째의 방해 작용에도 갈등을 느끼거나 약해지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지켜나간다. 아사달의 경우 아사달을 향한 사랑에 충실한 시련과 슬픔과 두려움이다. 이를 아사달이 주체가 된 욕망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아사달은 아버지 부서의 이복 동생이 되자 여러 제자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첫번째 방해자들의 것은 유혹과 간계는 아사달이 아사달을 찾아 서라벌로 떠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②아사달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남몰래 만나자라는 일념으로 서라벌까지 왔으나 불국사 문지기의 막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거지로 몰려다니는 아사달이 이야기를 듣고 못가에서 탐의 완성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아사달이 그림자 못에 빠져 죽는 계기가 된다. ③아사달은 그림자 못에 있다가 불국사에 의해 여러 대접을 받지만 나중에 불국사가 자신을 침으로 팔아넘기려는 것을 알게 된다. 세번째 방해의 역할을 하는 불국사의 간계는 아사달로 하여금 절망적인 위기를 느끼게 하여 아사달을 찾아가게 한다. ④하지만 아사달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내면 방해의 역할을 하는 주만은 자신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사달로 하여금 죽음을 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때 아사달이 불국사를 따라가면 누릴 수 있을 모든 영광도 무시하고 죽음을 택했던 것은 아사달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진실했으며, 자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만과 아사달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랑의 욕망 도식만으로 이 작품의 구조를 사랑 이야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만과 아사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사달의 욕망 도식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아사달의 경우 아사달은 주만과 아사달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이들의 사랑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두 여인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진 願佛을 새기고 자신도 간과해 버린다. 즉 아사달은 작품 전반을 흐르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끝부분에 가서야 두 여인의 죽음에

이 사람은 아사달이 죽은 후에야 아사달에게 수용된다. c는 주만과 아사달을 향한 욕망의 과정이다. 이 경우에도 주만의 사랑은 아사달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주만이 불국사를 문지기의 막대로 막을 수 밖에 없었다. 아사달은 아사달의 죽음을 보았고 이를 새겼으므로 주만과 아사달은 아사달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중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중개의 역할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①아사달에게는 처음부터 탐의 완성을 통해 구현될 불교적 이상 세계로의 도달이라는 욕망이 있었다. 그래서 아사달이 불국사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완성하는 첫번째 단계에서는 그 어떤 중개의 역할이 없이 수직적으로 목표가 되는 대상을 추구하고 있다. ②그러나 두번째 단계에서는 주만과 아사달의 죽음을 통해 부처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새겼으므로 주만과 아사달은 아사달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중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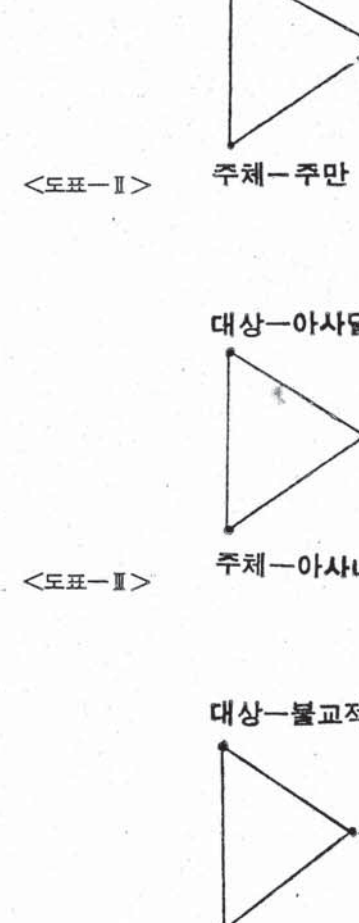
그 죽음을 통하여 사랑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보살의 모습으로 새겨졌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두 여인의 죽음이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된 것은 이 소설의 주제적 차원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된다. 여기서 아사달의 죽음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두 여인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진실을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뜻도 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수용이 아님에 분명해진다. 아사달이 탐을 단념한 것 역시 두 여인의 죽음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다. 아사달이 두 여인의 죽음을 보았고 이를 새겼으므로 주만과 아사달은 아사달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중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사건의 전개가 너무 느리고 사건간의 연관성이 미약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장황한 기술

II 작품의 서술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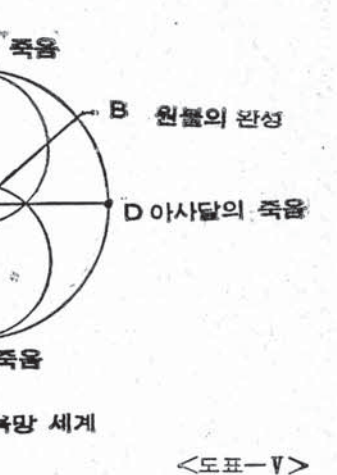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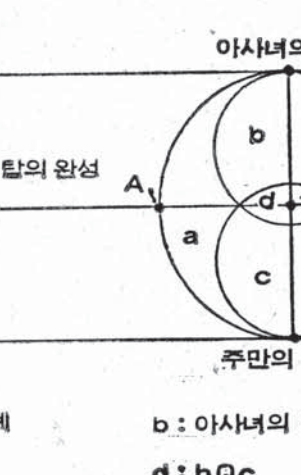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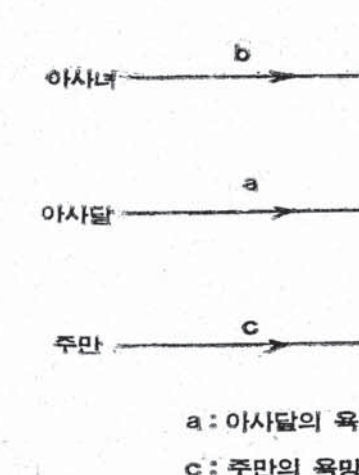
「無影塔」은 신라 귀족의 딸인 주만과 부처의 석공인 아사달 그리고 그의 아내 아사달과의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처음에는 주만과 아사달이 중심 인물이 되어 전개되다가 결말 부분에 이르러 두 여인이 죽는다. 이때 부처는 두 여인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사달에 의해 세 사람의 관계도 구제되고 작품의 의미도 뚜렷해진다. 이는 <도표-I>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1)은 주만이 불국사에 갔다가 아사달을 보고 불교의 경이 생겨 계속 만나다가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다. (2)는 아사달이 부처에서 여러 시련을 겪고나서 아사달을 찾아 서라벌로 떠나는 단계다. (3)은 주만이 금성에 의해 불국사 사안이 발생하게 되자 일이 점차 다급해짐을 알고 경신에게 파혼을 요청하는 단계다. (4)는 아사달이 서라벌까지 왔으나 아사달을 만날 수 없어, 자기의 시신 위태로움 탐의 모습이 비참하기를 바라며 그림자 못에 빠져 죽는 단계다. (5)는 조희에서 금시종이 유종을 비난하는 데 불국사 사단을 이용하여 주만의 부모가 일의 전모를 알게 되는 단계다. 어머니 사촌 부인은 주만으로부터 모든 걸 듣고 설득했으나, 주만의 마음은 변할 없었다. (6)은 아사달이 탐을 완성하고나서 아사달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곳의 돌에 아사달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하는 단계다. (7)은 주만이 떠날 결심을 하고 아사달을 찾아 열지까지 갔으나 불국사 벽에 의해 불에 태워지는 단계다. (8)에서 아사달은 아사달의 환영을 새기다가 주만의 존재를 깨닫고 충당한다. 아사달은 두 여인의 환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침내 하나로 녹아들 부처의 모습인 願佛을 새기게 된다.



다. 따라서 사건간의 인과 관계 및 작품 전체와의 연계를 위해 다음에는 각종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욕망 구조를 통해 살펴 보겠다. III 각종인물의 욕망구조 「無影塔」은 아사달에 대한 주만과 아사달의 사랑에 가해지는 시련이 교차되다가 결국은 두 여인이 죽고 아사달도 두 여인의 모습을 따라 願佛을 새기고 죽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사달은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해 부처의 모습을 보고 영지에 願佛을 새긴다.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새겨 부처시키고 아사달이 빠진 영지에 자신도 몸을 던져 죽는다. 이는 아사달의 자해 두 여인의 죽음을 따라 아사달의 죽음까지도 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사건에 따라 중심 인물이 달라진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모두 파악해야 한



이 작품은 사건에 따라 중심 인물이 달라진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모두 파악해야 한

다. 따라서 사건간의 인과 관계 및 작품 전체와의 연계를 위해 다음에는 각종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욕망 구조를 통해 살펴 보겠다. III 각종인물의 욕망구조 「無影塔」은 아사달에 대한 주만과 아사달의 사랑에 가해지는 시련이 교차되다가 결국은 두 여인이 죽고 아사달도 두 여인의 모습을 따라 願佛을 새기고 죽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사달은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해 부처의 모습을 보고 영지에 願佛을 새긴다.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새겨 부처시키고 아사달이 빠진 영지에 자신도 몸을 던져 죽는다. 이는 아사달의 자해 두 여인의 죽음을 따라 아사달의 죽음까지도 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사건에 따라 중심 인물이 달라진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모두 파악해야 한

다. 따라서 사건간의 인과 관계 및 작품 전체와의 연계를 위해 다음에는 각종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욕망 구조를 통해 살펴 보겠다. III 각종인물의 욕망구조 「無影塔」은 아사달에 대한 주만과 아사달의 사랑에 가해지는 시련이 교차되다가 결국은 두 여인이 죽고 아사달도 두 여인의 모습을 따라 願佛을 새기고 죽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사달은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해 부처의 모습을 보고 영지에 願佛을 새긴다.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새겨 부처시키고 아사달이 빠진 영지에 자신도 몸을 던져 죽는다. 이는 아사달의 자해 두 여인의 죽음을 따라 아사달의 죽음까지도 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사건에 따라 중심 인물이 달라진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모두 파악해야 한

다. 따라서 사건간의 인과 관계 및 작품 전체와의 연계를 위해 다음에는 각종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욕망 구조를 통해 살펴 보겠다. III 각종인물의 욕망구조 「無影塔」은 아사달에 대한 주만과 아사달의 사랑에 가해지는 시련이 교차되다가 결국은 두 여인이 죽고 아사달도 두 여인의 모습을 따라 願佛을 새기고 죽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사달은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해 부처의 모습을 보고 영지에 願佛을 새긴다.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새겨 부처시키고 아사달이 빠진 영지에 자신도 몸을 던져 죽는다. 이는 아사달의 자해 두 여인의 죽음을 따라 아사달의 죽음까지도 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사건에 따라 중심 인물이 달라진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모두 파악해야 한